

“문화도시 광주 만들기 기금 500억 확보 주력”



들도 광주에 정착하며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이 저의 꿈"이라며 "안정적으로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실 각종 공모사업 응모 시 시스템이 복잡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 노 대표는 응모 과정에 도움을 주는 방안 등을 강구해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재단을 이끌어가는 데 '정치적 활동' 등에 대한 기대와 염려가 공존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정치적 활동에서 경험한 역량이 문화재단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노 대표는 예산 확보에 정치력을 발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의원들 도움을 받아 문화재단 예산 뿐만 아니라 광주 문화예산을 증액하는 데도 일조하겠다"는 것이다.

"취임식 때 선언한 바 있어요. '임기 내 기금 500억 원을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 정도 기금이면 문화재단은 시에 손 벌리지 않고도 자체사업을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꼭 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신임 광주문화재단 노희용 대표이사

아시아설화·신화 킬러콘텐츠 개발 정책거버넌스 등 역점 사업 추진 지역 문화기관 협력 방안 모색 예술인이 창작하기 좋은 환경 조성

"문화도시 주인공은 시민과 예술인입니다. 문화를 즐기고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산까지 참여하는 시민들이 점차 늘고 있지요. 문화예술로 생계 넘치는 도시의 기본 요소는 문화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노희용 신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문화가 미래 발전의 동력이 된 시대에 선언과 구호에 그치지 않고 광주를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런데 "20년차를 향해 달려가는 문화재단 장점을 최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해 '문화예술로 시민의 일상이 즐겁고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했다.

노 대표이사는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책거버넌스, 광주국제미술전람회(아트광

주), 디어마이광주, 아시아설화·신화 킬러콘텐츠 개발을 들었다.

올해로 출범 14년차를 맞은 문화재단은 일정 부분 조직의 안정, 구성원들 역량의 신장 등은 이루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단위사업에 치중해 있다는 평가가 상존한다. 도시 내 자원들의 거버넌스 구축이 미약해 문화도시로서 나아가야 할 큰 그림을 그리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문화예술로 행복해지는 문화도시는 프로그램의 구체화, 네트워크 연대 활동을 매개로 완성된다"며 "출로 일하는 문화재단이 아닌 네트워크로 지역이 함께 나아가는 조직이 되도록 삼혈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신임 노 대표이사는 지방고시 1회로 공직에 입문 후 광주시 문화수도정책관, 문화관광정책실장 등을 거쳐 민선 5-6기 광주 동구청장 등을 역임했다. 이와 같은 공직 경험은 향후 문화재단의 방향성과 운영 등에 있어 기대감을 갖게 한다.

"대부분 기관들이 고유 목적사업에만 치중해왔던 게 사실이지요. 지난 2013년부터 문화재단이 주축이 돼 15개 지역문화예술기관이 함께하는 '광주 문화기관협의회'가 탄생했습니다. 앞으로 협의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머리를 맞출 생각입니다."

예술인이 창작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는 "창작이 즐거운 문화도시, 타 지역 예술인

농악 콘서트 '버라이어티 연희 쇼!' 광산농악보존회, 25일 운남근린공원

오늘의 시대와 전통 예술을 망라해 '농악의 미래'를 보여주는 창작공연 한 판!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8호 광산농악보존회가 '사시사철 굿이여' 행사 일환으로 농악 콘서트 '버라이어티 연희 쇼!'를 오는 25일 오후 2시 운남근린공원에서 펼친다.

이번 콘서트는 마을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활용했던 농악 연행을 공연, 체험, 교육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이다. (4-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총 6회 진행, 7월 제외)

식전 공연으로 '광산농악'의 갈래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후 '사시사철 Good'이라는 제목으로 옛 절경리패의 고사소리 '비나리'와 마을공동체 변영을 축원하는 마을굿 '도당굿', 우리 고유의 종합예술 '사물판굿' 등을 만날 수 있다. 관객과 함께 즐기는 사자탈춤과 광대들이 아슬아슬한 퍼포먼스를 펼치는 '광대들의 왕중왕전'도 관객들을 만난다.

두레굿에 기반한 '큰기 깃발싸움', 약기 두드림을 통한 '액막이리', 팽과리를 흥친 도독을 잡는 '도독잡이리' 등 체험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버나놀이, 죽방울놀이 및 죽마놀이, 큰기 돌리기 등 전통 연희 놀이는 상시 체험할 수 있다.

1990년 8월 설립된 (사)광산농악보존회는 광주



광산농악보존회가 '버나 돌리기'를 시연하는 장면.

<광산농악보존회 제공>

지역 농악을 정립하고 전통 명맥을 잇는 단체다. '광산농악'을 대내외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광산구 하남동 가야제 일원에 '광산농악 전수교육관'을 개관해 지역문화거점으로 역할하고 있다.

광산농악보존회 김지은은 "사시사철 굿이여

행사는 과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농악을 어떻게 활용하고 즐겼는지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며 "다양한 공연, 체험으로 채운 '사시사철 굿공연'과 우리 전통의 문화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자리한 LG아트센터는 공연계에서 인색(?)하기로 소문나 있다. 대다수 문화예술기관들이 발행하고 있는 초대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 '내돈내산'으로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은 공연에 흥취하고 이런 열면 분위기에 고무된 아티스트는 감동적인 무대로 화답한다.

공연계의 부러움을 샀던 LG아트센터는 20년의 강남구 역삼동 시대를 끝내고 2년 전 지금의 자리로 등지를 옮겼다. 역삼동의 공연장이 스케일이 큰 대형 오페라나 뮤지컬을 무대에 올리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탄탄한 고객층과 색깔있는 콘텐츠로 입지를 굳힌 만큼 '마곡동 이전 계획'

유휴 수 있는 오페스트라피트와 좌석간 거리가 1m, 최대 5.7" 까지 기술어저 무대의 감동이 객석으로 생생히 전해진다. 뉴욕필 하모니 오케스트라, 모리스 베자르 발레단, BBC 필하모니 등 콧대 높기로 소문난 '귀하신 몸'들이 서울보다 대전을 먼저 찾은 것도 그 때문이다.

최근 광주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걸맞은 전문예술극장 건립을 위한 '전문예술극장 건립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전문예술극장은 오페라·뮤지컬 등의 장르를 수용하는 차별화된 공연장으로, 문화예술-건축분야 등의 전문가들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기간 사업 대상지 선정, 공연 장르,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하게

'전문예술극장 자문위'에 거는 기대

이 발표됐을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10월 안도 다다오의 설계로 문을 연 LG아트센터는 보란듯이 개관 1년 동안 총 29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쾌거를 거뒀다. 기존 역삼동 아트센터의 연평균 관객 20만 5000명 보다 40% 이상 많은 성적이다. 특히 개관 기념공연으로 기획한 '사이먼 래틀 &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 조성진 협연) 티켓은 40초만에 전석매진됐다.

대전광역시에도 LG 부럽지 않은 공연장이 있다. 중부권의 '남파원' 무대로 꼽히는 대전예술의전당이다. 대전시립미술관, 이응노 미술관 등이 들어서 있는 둔산대공원에 위치해 낮에는 미술관, 밤에는 예술의전당을 찾는 시민들로 연중 북적인다. 특히 작품성과 흥행성을 갖춘 작품들을 기획해 클래식 애호가들 사이에 '민들보' (민고 들고 보는) 공연장이란 타이틀도 얻었다.

여기에는 퀄리티 높은 시설의 공이 크다. 대극장인 아트홀(1546석)은 120명의 단원을 수

된다.

시가 전문예술극장건립을 추켜들게 된 것은 지난해 291억 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한 광주예술의전당이 다목적 공연장의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90년 대 이후 들어선 국내 아트센터들이 오페라, 뮤지컬 등 장르에 맞는 전용홀로 지어지는데 반해 1985년 건립된 광주예술의전당은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다목적 공연장이다. '다목적'이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그 어떤 장르도 100%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렇다 보니 2년 6개월의 리모델링을 거쳤지만 고난이도의 무대연출이 필요한 오페라 등을 '구현'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르별 전문예술극장은 시대의 대세다. 하지만 건립 비용에서부터 콘서트, 운영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촘촘한 로드맵과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 잘 만든 아트센터는 도시의 브랜드이기 때문이다.

<문화·예향국장, 선임기자>

공부 걱정 없는 아이들의 세상을 꿈꾸며

노남진 시인 '궁금해요?' 퍼내

"아이들이 학교 수업 마치고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5월 가정의 달이지만, 오늘의 우리 아이들은 쉬지 못한다. 보통 두세 개 서너 개나 되는 학원을 다니느라 마음 편히 쉴 틈이 없다.

한림문화재단 이사장인 노남진 시인은 그런 어린이들을 볼 때마다 짝한 마음이 든다. 마음껏 뛰놀고 즐거워야 할 우리 아이들은 언제부터가 학원, 공부에 매여 숨 쉴 틈조차 없다.

노남진 시인이 이번에 펴낸 동시집 '궁금해요?' (한림)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밝게 뛰어노는 소리 등을 들을 수 있다.



"파도와 뛰놀던/ 아이들 함성소리/ 철썹철썹 메아리칩니다.//이리저리 등고선을 그려도/ 밀물과 썰물/ 씩씩씩 뛰놀아도/ 마음껏 뛰어놀 아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다// 쿵쿵쿵 뛰어도/ 철썹철썹 노래 불러도/ 걱정 없는 갯벌은/ 아이들 놀이터입니다"

위 작품 '놀이'는 갯벌의 모습을 그린 동시다. 학원 걱정도 공부 걱정도 없는 놀이터에서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은 해맑기 그지 없다. 아무리 갯벌에 그림을 그려도 밀물과 썰물이 청소를 해준다는 표현이 재미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환우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병원 부모님을 모셔도 좋은 "동행요양병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치료실 운영
중풍재활 / 인지기능수술후 재활

요양병동 운영
일반요양 / 전담간병인실운영 (24시간 간병인 상주)

한의 집중치료
침·뜸·부항·약침, 물리요법 등의 치료실 운영

의학, 한의학 협진

중추신경계 재활치료 | 수술 후 재활치료 | 근골격계 통증치료

면회공간
환우분의 만남의 장소가 병원1층에서 면회와 운동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작업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내 생활공유
환우분의 근황 및 일상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동행요양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 인공기전 | 2020.10.19 ~ 2024.10.18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26 | 062) 720-2000